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탈선과 혼선의 극단에서 만난 기로>의 줄거리 :

탈선과 혼선의 삶이 극단에 치달은 상태에서 멸망과 구원의 기로, 즉 갈림길에 서게 된 사람의 상황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벌어지는 탈선은 어떻게 시작되며 탈선이 중첩되어 삶 전체를 엉키게 만드는 혼선의 극단은 어디일까요?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탈선이 모여 전체가 혼선이 된 삶은 통째로 버리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탈선과 혼선으로 이루어진 삶을 절대로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탈선과 혼선의 극단에서 만난 기로

(창세기 19:1~38)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천사 둘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으로 찾아간 사건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몰려와서 이들을 끌어내 상관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야다(ידע)로써 일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만 여기서는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을 끌어내어 남색을 하고자 했음을 가리킵니다. 영어에서 동성애 중에서도 특히 남색하는 자를 소도마이트(sodomite)라고 하는

데 그것이 바로 이 장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문을 부수려는 소돔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소돔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성 밖으로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산까지 도망갈 수 없다며 주변의 작은 성인 소알로 도망치게 해달라 호소하였고 천사들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산으로 도망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기약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소알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지게 되자 롯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결국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롯은 산으로 도망갔으나 이로부터 다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자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에 남아서 같이 죽고 맙니다. 이에 롯의 두 딸은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뒤에 큰 딸과 작은 딸이 차례로 들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차마 읽을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탈선과 혼선의 극단에서 만난 기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로는 갈림길입니다. 롯은 탈선과 혼선의 극단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에게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갈림길에서 구원의 길로 끌어내십니다. 롯은 이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쑤셔 넣듯이 구원과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선은 기준이 되는 선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할 내용들을 다 하늘에서 점선으로 그려두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기도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실제로 말하

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점선으로 그려두신 뜻을 실선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뜻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고 하니 삶이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할 수 없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 것에 대해 마음이 죽음으로써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뵙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하게 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레일을 달리는 기차처럼 탈선하지 않고 정로(正路)를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묻힌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영광의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탈선이 되고, 이러한 탈선이 반복되면 삶 전체는 혼선의 덩어리가 됩니다. 본문은 이처럼 삶이 혼선의 덩어리가 된 상태를 소돔 사람들을 통해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마음에서 이 세상 것만을 영광되게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결과는 동성애로 상징되는 악의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이 당시 동성애가 창궐하던 죄악의 본산지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중동 땅에 물이 넉넉한 지역은 드뭅니다. 그런데 바로 소돔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중동 땅 어느 곳보다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넓어서 목축업이 성행할 수 있었고 농사를 짓기에도 좋았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로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요함이 허락되는 환경 속에서 소돔 백성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은 흑암 속에 가려져 계십니다. 이들의 마음은 오직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촉각의 오감으로 만나는 세상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려가는 길은 처음부터 탈선입니다. 그 탈선이 반복되며 삶은 혼선의 덩어리가 됩니다. 탈선과 혼선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장 대표적 특징이 동성애로 나타납니다. 본문에는 네 번의 탈선이 언급 됩니다. 첫 번째는 소돔 백성들과 롯의 사윗감들의 탈선이고, 두 번째는 롯의 탈선이며, 세 번째는 롯의 아내의 탈선이고, 네 번째는 롯의 딸들의 탈선입니다. 이처럼 혼선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악의 극단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보여 줍니다.

첫 번째로 소돔 백성들의 탈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소돔에는 그저 동성애가 유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서 강제로 범하고자 하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정도로 인간성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상관하리라고 번역된 원문은 히브리어 야다(ידע)로써 동침하는 것입니다. 이 탈선의 상태가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져다줍니다. 동성애가 탈선이라면 이성애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탈선과 무관한 것일까요?

이성애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셨던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6장 1~2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육체의 오감으로 선택한 좋음을 따라가는 것이 고깃덩어리의 상태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는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고깃덩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간은 지옥행 사형수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꼬깃꼬깃 접혀있는 오만 원권 지폐와 같습니다. 접혀있든 빳빳하게 펴있든 오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 원권에 같은 가치가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같은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란 마음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빗나감입니다. 그 대신 영광의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 종교에서도 영광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습

니다.

문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접힌 오만 원권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펼쳐지는 모습이 악입니다. 갓난아기든 성인이든 죄와 저주에 찌들어 있는 것은 똑같은데 갓난아기는 아직 악을 자행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에서 놓친 채로 성인이 되어갑니다. 육체의 오감을 통해 만나는 대로 마음에서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좋음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고깃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 악을 점점 더 많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을 많이 행하는 것이 돌이키기가 힘이 듭니다. 악을 행함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좋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마음이 세상에서 좋음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변태가 나타납니다. 성은 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중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정로를 걷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돈을 관계한다면 돈에 대한 관계에서 정로를 걷게 됩니다. 내 몸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내 몸에 대해 관계하면 몸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정로를 걷게 됩니다.

반대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탈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성에 대한 탈선입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움에 싫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크기로 지어졌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변태가 나타납니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끌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심정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아니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대출 이자를 갚는 데 헐떡이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변태가 잘 드러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은 발견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돈을 관계해야 되는데 영광의 돈을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조차도 영광의 돈을 바라보고 있으니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악을 자행할 뿐인 변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

니다. 성적인 차원에서 남자가 남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여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듯이 돈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돈을 구합니다. 이게 변태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건강은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을 구한다면 동성애와 똑같은 변태입니다.

꼬깃꼬깃한 오만 원권이 펼쳐지듯이 모든 방면에서 변태가 나타납니다. 이 변태는 정로를 벗어난 탈선과 혼선이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현 상황이 말이 됩니까? 동성애와 똑같이 영적으로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상태가 만들어 내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누적된 결과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소돔과 같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소돔의 탈선과 혼선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는 크기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로를 걸어서는 만족하지 못하기에 반드시 탈선하게 되고 변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모여서 삶 전체가 혼선과 혼란의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롯의 탈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롯의 탈선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롯의 탈선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삶의 터전을 선택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고서야 가까스로 치료와 회복이 가까스로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도 롯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아브라함을 봐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롯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말하고 행동하며 이룬 삶 전체를 버림으로써만 탈선과 혼선에서 구원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도망하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로 가야만 합니다. 두 천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으로써 이 몸을 통하여 이제까지 말하고 행동하면서 얻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로 가자. 마음이 세상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하늘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땅에 남아있는 한 탈선과 혼선이 이루어지고, 그 상태가 유지될 때 극단으

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동성애로 상징되는 변태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변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변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계, 건강에 대한 관계, 내 미래에 대한 관계도 변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갈 수 없다면 모든 것이 변태로 바뀌고 맙니다. 이 세상 것들은 어떤 것도 절대로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붙어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변태적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롯의 탈선은 손님을 구하기 위하여 정혼한 딸들을 변태성욕자들에게 내어주려는 모습에서 또한 드러납니다. 이 모습은 자기 딸들을 바쳐서라도 손님을 구하겠다는 희생정신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롯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염두에 두자면 이 또한 마음의 탈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7~8절을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롯의 탈선은 세상 문제를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보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사라를 바로에게 들여보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상태를 방해 받지 않고 유지하려는 가운데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생각하지도 않은 후손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정로를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편 롯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았지만 동성애가 악한 일임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돔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카드 빚을 다른 카드로 막는 돌려막기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것들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도 일어나는 탈선입니다. 그리고 이 탈선은 더욱 큰 혼선이 빚어지게 됩니다. 세상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려들지 말고 하늘로 도망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더 큰 문제의 구덩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최선의 길은 마음을 문제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마주한 세상 문제에 대해 주인이 되어있습니다. 손님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딸을 내놓지만 이것은 세상 문제를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는 탈선을 자행하는 것뿐입니다. 이로부터 더한 혼선이 빚어지게 됩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알아서 롯을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롯은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의 바람과는 반대로 소돔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았고 이에 천사들은 변태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롯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 문제를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탈선과 혼선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롯의 탈선은 지체함에서 나타납니다. 롯에게는 아직도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롯의 머리 속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롯이 지체한 이유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에 대한 위기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편안히 살아가는 이유는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이 어느 정도의 위기인가를 유황불로 소돔을 태우심을 통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서 유황불 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한 채 영원히 불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소돔 멸망 사건의 의미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제치고 비옥한 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불려 왔습니

다. 롯은 이 재산들이 너무나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사들에게 산 대신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소알은 비옥한 지역의 마지막 경계였습니다. 소알은 미래를 기약하고자 함입니다. 이 비옥한 땅의 끄트머리에서 기다리다가 소돔이 멸망 당한 후에라도 다시 돌아와서 기회를 노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했기에 천사들은 이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돔이 멸망 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서운 롯은 소알로 가지도 못합니다. 소알에 머물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야 산으로 도망합니다.

소알은 우리의 혼선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알은 작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젊었을 때 원대한 꿈을 갖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많으니 큰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힘듦을 느끼고 바람이 작아집니다.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은 똑같으나 컸던 바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지장 없고 안정되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들고 나중에는 연금이나 받으며 때에 따라 여행을 다니며 편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나 기후변화 같은 큰 범위에 대한 일들은 더는 관심이 없습니다. 롯이 소돔에 대한 관심을 줄여서 소알로 옮겼듯이 큰 영역에 대한 관심을 줄여서 작은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로또라도 된다면 잘 풀릴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서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카드 빚을 다른 카드로 막듯이 세상 문제를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혼선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세상 문제를 세상 것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큰 꿈을 갖고 있다가 다 놓치고 잃어버린 다음에도 소알처럼 작은 것들을 원합니다. 이것도 혼선의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롯의 아내의 탈선을 봅니다. 롯의 탈선은 롯의 아내의 탈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도저히 아까워서 미련이 남는 것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를 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됩니다. 비유적으로 보자면 소금 기둥은 근처의 사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해는 염도가 높아서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란 바로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롯의 아내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지독할 정도로 짠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시원하게 마음을 툭 잘라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았을

텐데, 롯의 아내는 끝까지 이 세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흔히 돈에 인색한 구두쇠를 짠돌이라고 하는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인색한 짠돌이였고 사해 같은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소금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롯의 딸들의 탈선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었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잦아든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롯의 딸들은 산에 있으면서 대가 끊겼음을 한탄하며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을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와 저주의 오만 원권이 펼쳐지고, 펼쳐지다 못해 완전히 펼쳐진 상태가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통해 대를 잇고자 하는 탈선과 혼선의 극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이 소돔 성에서 늘 보았던 것은 탈선과 혼선의 극단인 변태적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해서 임신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끔찍하고도 무서운 탈선과 혼선으로부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태까지 가지 않았어도 이미 고깃덩어리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노아 홍수를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를 골라 결혼하는 것은 고깃덩어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육체의 오감에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태적 행동으로까지 발전하도록 영광의 하나님이 흑암 속에 묻혀 있는 상태를 놓아둔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구원을 쑤셔 넣으셔도 탈선과 혼선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죄와 저주의 체질이 너무 강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30년 간 노예로 살게 하십니다. 노예는 탈선과 혼선의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육체의 오감에 좋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추구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여유로울수록 변태적 극단으로 치닫는 탈선과 혼선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로부터 동성애로 대표되는 변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돈과 건강과 모든 세상 것을 향

하여 변태적으로 말하고 변태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길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며 탈선과 혼선의 덩어리가 되었다면 십자가를 향해 도망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이 보고 계시기에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주권도 보지 못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마음 놓고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탈선의 극단으로 치닫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통째로 죽이고 내 마음은 이 세상을 빠져나가 하나님만이 보이는 자리까지 도망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도망감의 천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